

보도일시	2024. 2. 13.(화) 배포	사진	1	자료	0	매수	1
담당부서	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(생활안전팀)	과 장	이기봉 (031-8021-0300)				
		팀 장	송해연 (031-8021-0330)				
		담당자	박주경 (031-8021-0334)				

용인소방서, ‘지피지기 백전불태’ 겨울철 화재 추이·통계 분석을 통해 화재 원천 차단!



△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은 옥내소화전 점검 사진(왼쪽)/공동주택(아파트) 소방훈련 사진(오른쪽)(사진 용인소방서 제공)

용인소방서(서장 안기승)는 최근 5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 추이와 통계를 분석하고 성과와 반성을 살피 막바지 겨울철 화재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.

최근 5년간('18~'22년) 용인특례시에서 매년 평균 약 135건(30.9%)의 화재가 겨울철에 발생하여 계절별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화재 발생률 대비 평균 1% 감소하였고,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평균 4.7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성과로 연간 화재 감소 추세보다 겨울철 화재 감소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 소방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최근 5년간 겨울철 평균 대비 `22년 겨울철 화재피해 사망자 비율이 25% 증가했고, 재산피해액도 3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·재산 피해를 저감하는 목표로 삼고 화재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.

화재로부터 인명·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주거시설, 산업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관서 정책지원 활성화하도록 공동주택(아파트) 화재를 핵심 포인트로 관련 소방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.

안기승 서장은 “막바지 겨울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”라며 “생활 속 화재예방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자”라고 전했다.